

전주남부시장,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

시, 옛 원예공관장 2층 리모델링해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위한 공유 스튜디오·교육시설 등 조성 착수

전통시장 내 방치된 공간이 시민들의 문화 다양성을 키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전주시는 2022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국비 9억 원 등 총 24억 원을 투입해 전주남부시장 옛 원예공관장을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가칭)'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서브컬처란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 또는 주요한 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독자성 있는 매니아 문화를 지칭하며 애니메이션, 게임, 피규어, 코스프레를 지나 지금은 개인 미디어, 스트리트 문화까지 이어지며 새롭고 다

양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옛 원예공관장 2층을 리모델링해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공유 스튜디오인 MCN(Multi Channel Network)스튜디오 △서브컬처(하위문화, 부차적 문화) 장르의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는 디지털·기획 전시장 △교육시설 △야외행사 공간 △열린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총 면적은 1639㎡다.

이번 조성공사는 리모델링 공사 위주로 건축·설비공사와 내부 인테리어(스튜디오, 교육장, 전시공간 등), 외부공간 조성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

다.

옛 원예공관장 1층에는 전북 특산품을 살 수 있는 남부시장 공동판매장이 들어서고, 이곳과 이어지는 전주천변에는 120m 규모의 여행자거리가 조성된다.

시는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서브컬처 문화에 대한 인식 확대로 문화 다양성을 키우고,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기존 청년몰과 야시장 등으로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로 손꼽혀온 남부시장이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과 공동판매장, 전주천변

여행자거리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넘어 시민과 여행객, 시장상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방치된 유휴공간이 비대중적인 소재의 문화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공간이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 서학동 예술마을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산불피해 이재민에 반려동물 생존키트 전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재난 구호용 생존 꾸러미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일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대피시설(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을 찾아 반려동물 이재민 가족 11세대에 재난 구호용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각 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0년 홍수로 큰 수해를 입은 구례·남원에 이은 두 번째 지원(14개 전달)으로 '반려동물 생존키트'는 이재민 시설에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재난 구호용 반려동물 생존 꾸러미 세트다.

생존키트는 동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반려견과 반려묘 2종으로 구분 제작되었으며, △반려견(묘) 집 △배변패드(모래)·봉투 △목줄·입마개 △해충 기피제 △사료(통조림5·7일분, 생수) △버블샴푸시트 △담요 △인식표 등 총 17종의

로 구성됐다. 또한 안전성을 갖춘 이동형 케이지와 응급 약품상지도 포함됐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화재지역 이재민 구호 활동을 위한 현장 구호단체 활동 지원금으로 지난해 전라북도 시군센터 평가에서 상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황의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전주시의 동물친화도시 정책에 맞춰 동물에 대한 복지와 공존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관, 지역활동가, 언론,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 성황리 마무리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뜻밖의 미술관에서 19일 동안 8000여명 방문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뜻밖의 미술관에서 진행된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서노송예술촌 내 뜻밖의 미술관에서 진행된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에 약 8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서노송예술촌 내 뜻밖의 미술관에서 진행된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에 약 8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고(故) 백남준 작가가 1977년 발표했던 IP 음반 제목 '나의 환희(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My Jubilee ist Unverhemmet)'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인 △비디오 상들리에 no.4(Video Chandelier no.4, 1999) △갈 곳 없는 부처(Homeless Buddha, 1991) △나는 비트겐슈타인을 읽은 적이 없다(I never read Wittgenstein, 1999)를 포함한 작품 16점과 고인의 생애와 작품 활동 등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미술관에 방문해 전시를 관람한 한 시민은 "과거 성매매결점으로 접근을

피했던 이곳에 미술관이 생겼다는 것에 놀랐고, 뜻밖의 미술관 이름처럼 뜻밖의 예술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교과서나 티비에서나 보던 백남준 작가 작품들을 눈으로 직접 보니 감회가 남다르고 앞으로도 이런 유명 작가의 예술작품들을 우리 지역에서 관람할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며 관람 소감을 밝혔다.

이번 특별전을 기획한 한리안 프레젠티 대표는 "과거 선미촌으로 불렸던 이곳에서 백남준 선생님의 철학과 창의성을 개혁정신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을 기획하게 되어 무엇보다 뜻깊었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즐거워 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며 "그의 어록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어라'처럼 서노송예술촌의 문화예술 발전 또한 거칠 것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전주시가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세정을 위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채규성 전주시 지방세 담당관은 △2022년 지방세정 운영 방향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적용 요령 △최신 유권해석 및 판례 등 새로운 납세자의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

△우수 징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참석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착한납세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공유가 이뤄지기도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공무원에게는 지방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전주시는 4월 한 달 간 40개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2000마리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만큼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비용은 평소 2만 원 안팎이지만

이번 달 30일까지 예방접종을 할 경우 약 5000원의 접종수술비만 부담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광견병 백신이 한정돼 있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동물복지과(063-281-507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회에 걸쳐 총 4000여 건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전주시의회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병술 의원을 임명하고 오는 8일부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결산검사 위원에 박 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정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을 검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결산검사 위원은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전주시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대표 위원으로 임명된 박병술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전주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와 불



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 등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장은 "예산편성 심의와 더불어 결산검사를 통해 전주시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